

광주 무상급식 확대·전남 다동이 지원 중점

광주·전남 교육청 내년 예산안 보니
우레탄 트랙 교체·CCTV 개선 등 안전 예산 늘려
광주 맹·난방시설 44억원 편성...전남 바둑중 설립

광주시교육청은 1조7932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지난 10일 시의회에, 전남도교육청은 3조3496억원에 이르는 예산안을 확정해 11일까지 도의회에 각각 제출했다.

시·도회의의 예산안 심사가 남아있지만 광주·전남 교육청의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내년 교육 정책의 초점이 어느 분야에 맞춰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학생들까지 무상 급식을 확대하는가 하면, 4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 확충에 중점을 뒀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광주, 특성화고 무상급식되나**＝13개 특성화고 무상급식비(77억8000만원)는 빼듯한 살림살이에도 '장학국표 교육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재정난에 일반고와의 형평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면 1만139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성화고 무상급식은 장항구 교육감의 직선 2기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장항구 광주시교육감의 '고교까지

무상급식' 공약을 '특성화고 무상급식'으로 변경, 내년부터 실시키로 실천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곳에 쓸 예산이 쪼그라드는 점을 감안, '특성화고 무상 급식'을 지금 꼭 시작해야 하느냐'고 비판한다.

◇**학교가 카네이션 구입할까**＝광주교육청이 유·초·중·고 437개교 학교기본운영비를 5.4%(60억원) 인상, 1169억원을 편성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일선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취지라는 점에서 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위축된 교사와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해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사제 간 커피 한 잔이나 카네이션 한 송이 주고받는 것도 어려워진 현실을 반면, 스승의 날 카네이션 구입이나 사제 동행 행사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 초·중·고 저화질 CCTV 사라져**＝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화질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비(61억1300만원)가 반영됐다. 전남지역 828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는 9837대로, 자동자변회관, 야간식별이 불가능한 100만 화소 미만인 2278대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겠다는 게 전남교육청 구상이다.

◇**4자녀 이상 다동이 가정 지원 확대**＝전남도 교육감의 역점 사업으로 전남 4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교육비도 대폭 늘린다. 전남교육청은 올 해 5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했던 교육비(6억3600만원)를 4자녀 이상으로 확대, 관련 사업비를 34억5900만원(전년도 6억36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전남지역에서 4자녀 이상 형제·자매를 둔 중학생은 3023명, 고등학생은 3569명에 이른다. 전남도교육청은 예산 심사를 거쳐 중학생의 경우 ▲신입생 교복비와 수학·체험학습비 지원 ▲고교생에 대해서는 입학·수업료, 운영비, 기숙사운영비, 교복구입비, EBS 부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예산을 보태기로 했다.

◇**학생 안전 예산도 늘려**＝광주·전남 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 확보를 위한 석면·우레탄트랙 교체, 내진 보강 사업비 등을 반영했다.

광주의 경우 ▲내진 보강(공립 7개교·46억원) ▲석면 제거(공립 19개교·116억원) ▲우레탄 트랙(36억원) 등을, 전남에서는 ▲우레탄 트랙 교체(42억원) ▲도서벽지 통합관사 신축비(485세대 536억원) 등을 편성해놓은 상태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25개 지역 섬(여수 3·순천 2·완도 9·신안 13) 등에 통합관사 설계·시설 공사가 본격화된다.

◇**바둑중 설립되나**＝전남도교육청이 순천에 위치한 한국 바둑고 인근에 바둑중을 설립키로 하고 예산(95억원)을 편성한 점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전남교육청은 바둑고 인근 부지(1135㎡)를 매입(5억원)해 학급당 20평씩 3학급 수준의 바둑중을 설립키로 하고 설계비(2억7000만원)와 시설비(87억5000만원) 등 95억원 규모로 도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청은 바둑고 병설로 운영되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도의회 등은 영암에 위치한 바둑박물관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향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잡월드 예산 어쩌나**＝전남도교육청이 순천시와 협약에 따라 편성한 50억원의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잡월드) 관련 예산의 통과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60억원)가 절반 가량 삭감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다른 사업과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한편, 광주·전남 교육청은 재정형편과 정부 부담 원치를 들어 내년 예산안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광주 658억·전남 911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흥미로운 신문활용 교육 어떻게 할까

한국신문협회 NIE 활성화 워크숍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신문을 활용한 진로 및 리더십 교육'을 주제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은 교육현장의 NIE(Newspaper In Education·신문활용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신문사 NIE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문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활성화와 '리더십'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리더십은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 등을 말한다.

육현진 이화여대 교수는 '리더십 교육과 신문'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신문 텍스트가 인문 사회 중심의 융합교육, 글로벌 시민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며 비판적·성찰적·문화적 리더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신문 리더십'을 제안했다. 그는 "신문 리더십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미래사회 핵심

역량 육성이라는 목표와 신문사들의 강점인 시사성 있는 정보·다양한 교육 콘텐츠·디지털 인프라의 제공 등을 고려해 볼 때 학교 수업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화 교육부 교육과정과 장학관은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교과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육 모델을 지향하면서 개별 교과별로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도 개발이 시급하다"며 "교육부와 신문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NIE기자들은 이날 자유토론에서 "신문이 교육 현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뒤, "수업용 교육 자료로 학교 현장의 신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장·교사 대상 설명회 등을 적극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육단신
동강대, 21일까지 수시 2차 모집

동강대는 오는 21일까지 '2017학년도 수시 2차 모집'을 진행, 신입생을 선발한다. 모집 분야는 4개 계열, 22개 학과로, 간혹학과 신입생에 대해서만 수능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광주여대, 내일 '지역 나눔한마당'

광주여대는 오는 16일 오후 광산구에 위치한 복지관 어르신들을 초청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당뇨·치아 점검 등 건강관리와 장수사진을 촬영하는 등 '지역사회 마음나눔 한마당'을 실시한다.

전남대 로스쿨, 로클릭 9명 배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최근 발표된 '2017년 재판연구원(로클릭) 선발전형'에서 9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고등법원 1명(박은혜), 대구 1명(권순원), 부산 2명(강신규, 양성교), 광주 5명(김요고, 나경식, 배민신, 이현주, 이화선) 등이다.



시민들과 끼 나누는 발랄한 청춘들

동강대 사회체육과, 매달 스피닝사이클 공연

'학생들은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도록 하자.'

동강대 사회체육과 학생들이 매월 펼치는 '스피닝사이클 공연'은 이같은 취지에서 기획,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사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마련한 '청춘마이크 시즌 2' 사

업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예체능 분야 전공자들에게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전문대학생들의 꿈·끼를 살려주면서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지역민들에게는 이들 대학생들의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통해 다양한 문

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은 올 해 전국적으로 신청한 53개교 115개 팀(865명) 중 동강대 등 80개팀을 선발했다. 동강대 사회체육과 스피닝사이클팀은 지역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스피닝사이클은 음악에 맞춰 실내 자전거를 타고 안무 하는 유산소 운동이다.

이들 스피닝사이클팀은 지난달 전남대 공연에 이어 오는 26일 '프린지페스티벌'과 30일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지역민들을 위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곳곳 퍼지는 '옐로 카펫' 어린이 사랑

'옐로 카펫(Yellow Carpet)'을 아시나요?

옐로 카펫 설치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옐로 카펫은 아이들이 등·하교시 이용하는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에 노란색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프로젝트로, 학생들과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낸다.

광주에서는 하백초교가 최근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옐로 카펫을 설치한

것을 비롯, 곳곳에서 꾸준한 캠페인과 설치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추세다. <사진> 지난해 운남동에 2개의 옐로 카펫이 설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게 교육계 설명이다.

특히 아이들 안전을 위해 학부모를 비롯, 북구청·매곡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직접 장소를 선정하고 설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대표 1522·3396

경매 수익형 빌딩 감정가 41억6천만, 최저가 41억6천만 서구 광천동 / 일반상업지역 / 대지 223평 건물 571평	경매 골프장 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27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	수익형 상가 빌딩 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점 / 3층	감정가 21억 3천만, 최저가 9억 6천만
매매 오피스텔 매매가 45억 학동 / 8층 / 신축 / 대지 133평 건물 577평	매매 상가건물 매매가 15억 첨단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	교육 연구 시설 순천시 낙안면 / 대지 3987평 건물 336평 / 1종일반주거지역 / 아곡마을 내 위치 / 수목 식재	감정가 16억 2천만, 최저가 16억 2천만
		가스충전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점 / 자동세차기 / 3기 6구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7억 1천만
		연립주택 및 다가구주택 부지 서구 쌍촌동 / 대지 457평 / 2종일반주거지역 / 8m 도로점 / 주위 다가구주택 혼재 지역	감정가 11억 6천만, 최저가 11억 6천만
		고급펜션 및 전원주택 부지 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	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
		상가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	매매가 17억
		전원주택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매매가 13억
		숙박시설 부지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매매가 8억 5천만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매매가 5억 5천만
		계곡 산장 고창군 고수면 / 대지 300평 건물 65평 / 보전관리지역 / 원두막 10개, 평상 10개 / 하천독점사용	매매가 3억 5천만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